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손 인 서
(고려대학교)

김 승 섭*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14년 8월 31일까지 출판된,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학술논문 52편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문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연구들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양적 연구(N=46)가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N=5)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양적 연구는 1편을 제외하고 모두 단면 연구(N=45)였다. 셋째, 한국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들은 정신건강(N=42)에 집중되어 있으며, 넷째, 인구집단 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주민(N=21), 노인(N=12), 장애인(N=7), 그리고 노동자(N=7)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체계적인 문헌고찰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학력, 계급,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차별측정도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요청된다. 셋째,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관련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종단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중차별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차별경험, 건강,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3S1A3A2055212).

* 교신저자: 김승섭, 고려대학교(ssk3@korea.ac.kr)

■ 투고일: 2015.1.30 ■ 수정일: 2015.3.13 ■ 게재확정일: 2015.3.26

I. 서론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박수미 외, 2004), 이에 따라 차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세계적으로 보건학 분야에서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진행된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차별의 정의

차별(discrimination)은 개인이나 집단이 그 소속이나 지위를 이유로 받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unfair treatments)를 말한다(Krieger, 1999).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로부터 기인하는 차별은,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집단을 사회경제적 기회와 자원으로 부터 배제하는 대표적인 기제이다(Tilly, 1998). 차별은 피지배집단의 사회경제적 기회(교육, 취직, 임금, 승진 등)를 제한하고, 또한 이들의 주거형태나 대인관계 그리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경험은 불평등을 야기하고 지속시킬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러한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인간의 몸에 작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오랜 기간 의학과 보건학 연구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Krieger, 1999).

2. 차별과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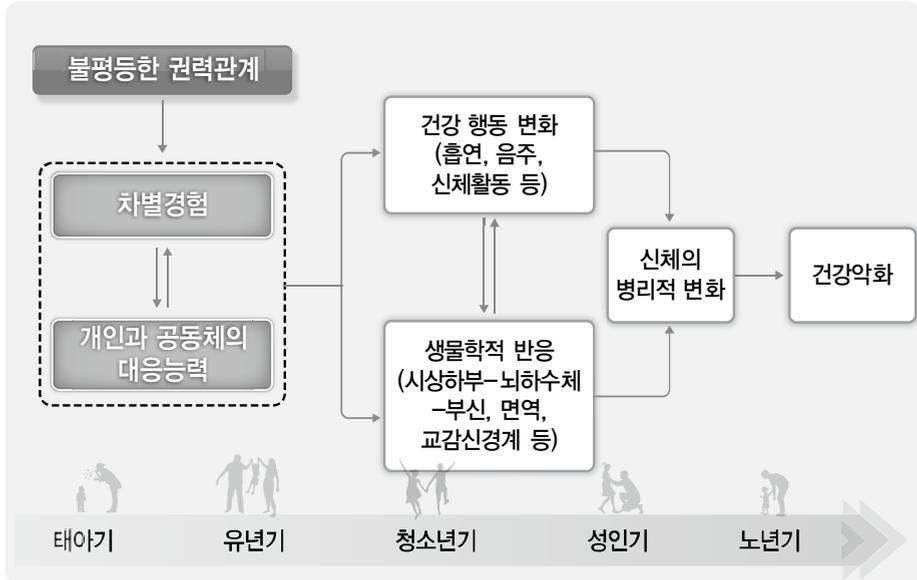
차별을 경험한 이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는 2000년이 넘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Krieger(1999)가 출판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에 포함된 경험적 연구는 총 15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사회역학의 학문적 성장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고, Williams & Mohammed(2009)의 종설 논문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출판된 총 115편의 논문이 포함되었다. 2013년 중반을 기준으로

차별과 건강에 대해 출판된 연구의 총 숫자는 500편이 넘는다(Krieger, 2014).

지난 15년 동안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중요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Paradies, 2006), 점차적으로 아프리카(Moomal et al., 2009; Williams et al., 2008; Williams et al., 2012), 남미(Pavao et al., 2012; Ferreira & Telles, 2014; Santana et al., 2007), 아시아(Asakura et al., 2008; Chou, 2012; Lin et al., 2009; Wang et al., 2010) 지역에서도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초기 연구들이 주로 인종차별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Paradies, 2006), 점차적으로 성(gender)(Sutin et al., 2014), 연령(Han & Richardson, 2014; Vogt Yuan, 2007), 성적지향(Burgess et al., 2007; Chae et al., 2010; Feinstein et al., 2012; Mays & Cochran, 2001), 교육수준(Kim & Williams, 2012)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에 기반을 둔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영역이 확장되었다. 건강변수 역시 초기에는 우울증이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혈압 등에 국한되었으나(Krieger, 1999), 약물남용(Borrell et al., 2007; Gibbons et al., 2012), 흡연(Wiehe et al., 2010) 음주(Chae et al., 2008) 등과 같은 건강위해행동(risky health behaviors)이나 심장병(Kivimaki et al., 2005; Wyatt et al., 2003), 대사증후군(De Vogli et al., 2007), 근골격계 질환(Kim et al., 2013) 등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확장되었다. 관상동맥 석회화(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Lewis et al., 2006)나 코티졸(cortisol) (Richman & Jonassaint, 2008; Zeiders et al., 2012) 등의 생체지표(biomarker)를 이용해 차별경험의 건강영향을 측정하는 연구도 출판되었다.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연구들을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그림 1).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기인한 차별경험은 개인과 공동체의 대응능력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Matud, 2004; Noh et al., 1999), 차별 경험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등의 건강위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생물학적 반응으로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Hypothalamus-Pituitary Gland-Adrenal Cortex)을 통한 코티졸 분비의 증가나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항진으로 다양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인체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비만, 심장병, 고혈압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Flier et al., 1998). 또 Gee et al.(2012)이 지적하였듯이 생애 초기의 차별경험은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성인기, 노년기에 걸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1.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주: Berkman et al. (2014, p.327)의 그림을 수정

3. 차별과 한국사회

한국에서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는 남녀불평등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 및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반영한다. 1970년대부터 분출된 노동운동은 한국사회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지만 주로 거시적인 사회체제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Koo, 2001). 1980년대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1987년 차별관련 제도화의 출발점이 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착취로 환원시키는 계급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제도화되고 일상화된 차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 계기가 되었다(박수미 외, 2004). 여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는 다른 영역의 차별, 특히 장애인과 지역차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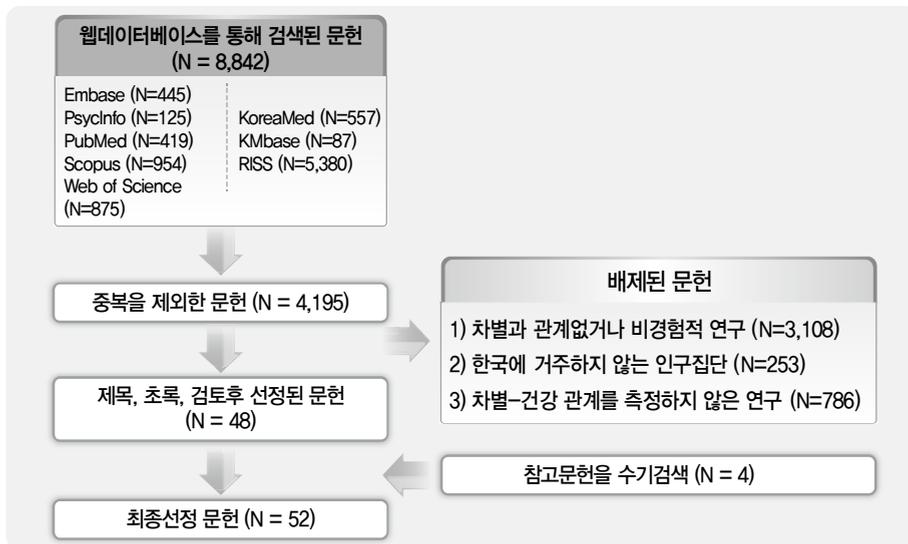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노동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차별 문제를 부각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의 재편과 소득격차의 심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소수자 집단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켰다(신광영, 2013). 200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

자와 결혼 이주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재외동포와 북한주민이 유입되면서 인종/민족적 소수집단이 출현하였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과 불평등을 낳았다(강휘원, 2006).

한국사회에서 차별은 이미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4년 2,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박수미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절반을 넘는 응답자(54.5%)가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조사에 응한 장애인의 절반 이상(51.6%), 여성의 24.1%, 그리고 비정규직의 약 20% 이상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노동패널 7차년도(2004)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학력과 나이가, 여성의 경우 성(gender)과 학력이 주된 차별의 이유로 보고되었다 (Kim & Williams, 2012). 위의 연구들은 차별과 이에 따른 사회 불평등이 21세기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차별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출판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포함하여, 인구집단, 차별측정도구 그리고 건강변수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차별이 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된 흐름을 이해하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 검색과정



II. 연구방법: 문헌검색 및 선택

본 연구는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출간된, 한국사회에서의 차별경험과 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국내외 문헌 중 학술지 논문만을 검토하였다. 단행본, 석박사 논문, 학회 발표문 등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대상문헌을 검색, 선정하기 위해 문헌고찰시 널리 이용되는 국내외 웹 기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외 데이터베이스는 Embase, PsycInfo, PubMed, Scopus, 그리고 Web of Science를 이용하였고,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Kbase, 그리고 KoreaMed를 사용하였다. 국외와 국내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언어와 인터페이스의 차이로 서로 다른 검색전략을 취하였고, 건강을 지칭하는 다양한 단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논문이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헌검색에서는 건강을 검색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체적인 검색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Embase, PsycInfo, PubMed, Scopus, 그리고 Web of Science의 경우 제목 혹은 초록¹⁾에 “차별(discrimination)”과 “한국(Korea, Korean, Koreans)”이 모두 포함된 사례를 검색하였다. 차별은 영어로 discrimination으로 번역되지만 영어에는 범주별로 차별을 지칭하는 별도의 단어들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검색어에 형용사형을 포함하여 discrimination, discriminatory, racism, racist, sexism, sexist, classism, classist, disableism, disablism, ableism, disableist, ableist, ageism, ageist, injustice를 사용하였다. 둘째,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base²⁾의 경우, 제목 혹은 초록이 국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사용된 차별을 지칭하는 영어단어 중 하나를 포함하고 한국어로 “차별”을 포함하는 경우를 추출하였다³⁾. 국내 데이터베이스이지만 영어로만 검색되는 KoreaMed의 경우 검색어로 “Korea”를 제외하고 국외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검색하였다.

1)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에 따라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제어(keywords)도 포함해서 검색하였다.

2) Kbase의 영어논문 검색은 PubMed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색에서 제외하였다.

3) 한국어에서 차별은 discrimination외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어 검색어와 함께 검색하였다.

III. 연구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검색된 문헌은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총 4,195건(국외 1,385편, 국내 2,810편)이었다. 이 중, 한국에서의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논문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2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검색된 4,195편의 초록을 검토하였을 때, 1) 차별경험을 변수로 포함한 경험연구(empirical studies), 2) 한국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 3) 차별경험과 건강과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측정된 연구 등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헌이 총 48편이었다. 둘째로, 48편 논문들이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수기 검색하여 4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52편의 논문이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PRISMA 가이드라인(Moher et al., 2009)에 기초하여 두 팀의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문헌검색을 진행하였으며(Shea et al., 2007) 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52편의 문헌을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5가지 기준(출판연도, 연구방법, 차별경험 측정도구, 건강변수, 연구방법, 인구집단)에 따라 연구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둘째로, 인구 집단에 따라 연구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부표 1).

1. 기존 연구의 흐름 분석

첫째, 출판연도에 따라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를 분류하였다. 한국에서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2003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5년까지 3편,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4편, 그리고 이후 2014년 8월까지 35편의 논문이 출판되어 연구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인종주의에 따른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두었던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Williams & Mohammed, 2009), 한국의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2005년까지 노인(3편)에 대한 차별연구로 출발되어, 비교적 최근에 이주민⁴⁾ 연구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⁴⁾ 본 연구는 이주민을 귀화의 여부와 관계없이 타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와 사는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며, 이민자의 자녀와 같이 이주경험이 없더라도 이민자와 유사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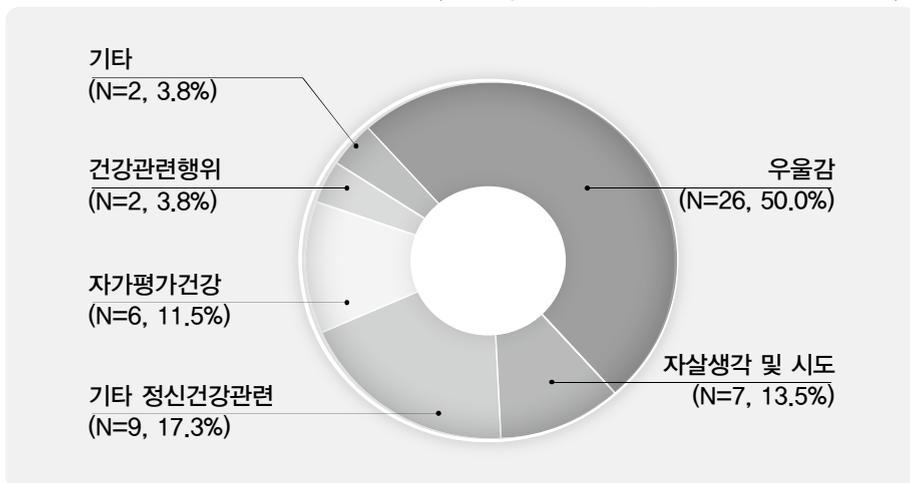
둘째,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였을 때, 52편의 연구 중에서 양적 연구는 46편(약 88.5%)으로 가장 많았고, 질적 연구는 5편이었다. 나머지는 메타분석 연구가 1편(문동규, 2012)⁵⁾이었다. 46편의 양적 연구 중 45편의 연구가 모두 단면 연구(cross-sectional study)였으며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는 1편에 불과했다. 유일한 종단연구인 전해숙과 강상경(2013)의 연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경험이 우울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양적 연구 46편은 차별경험이 건강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추론 연구(inferential study)였다. 또한 차별경험과 건강의 연관성을 살피지 않아 분석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건강과 관련된 차별경험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조사한 연구가 5편이 있었다(Lee et al., 2012; Yoon et al., 2011; 김성희, 2009; 김영선 외, 2014; 성정현과 이영미, 2003). 5편의 질적 연구의 경우 모두 이주노동자, 탈북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시어머니 등과 같은 이주민집단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양적 연구의 주요 대상인 장애인, 노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는 없었다.

셋째, 차별측정도구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였다. 46편의 양적 연구는 모두 응답자가 보고한 차별경험(perceived discrimination)을 차별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중 29편의 논문은 국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원도구를 번역하거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구조화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즉, 언어타당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토에서는 대부분 내적 일관성 신뢰도만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노인차별척도(Ageism Survey Instrument, ASI)(Palmore, 2001), 이주민의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Sandhu & Asrabadi, 1994), 그리고 다양한 인구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일상차별척도(Everyday Discrimination Scale, EDS)(Gyull et al., 2001)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17편의 양적 연구들은 표준화된 설문지가 아닌 기존에 사용되던 문항을 그대로 혹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례로, 조주은과 조금준(2014)의 연구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차별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을 이용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건강영향을 조사하였다. 질적 연구들의 경우, 별다른 차별측정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이나 초점집단면접(focus-group interview)을 통해 차별경험을 측정하고 있다.

⁵⁾ 문동규(2012)의 연구는 노인의 자살생각을 초래하는 인자들에 대한 한국연구 54편을 분석한 메타회귀분석연구로, 자살생각의 유발원인으로서 차별경험을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메타분석에 포함된 차별경험을 조사한 논문들은 학위논문이었기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3.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의 건강변수별 현황

(N=52: 양적 연구 46 + 질적 연구 5 + 메타분석 연구 1)*



주: *우울감과 함께 다른 건강상태를 살펴본 연구 2편(김오남, 2007; Cho et al., 2013)은 우울감으로 분류하였음. 건강관련행위 및 다양한 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Min et al., 2014)는 기타로 분류하였음.

넷째, 어떠한 건강상태를 살펴보았느냐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였다⁶⁾. [그림 3]은 양적 연구 46편, 질적연구 5편, 메타분석 연구 1편을 포함한 총 52편의 연구에서 어떠한 건강변수를 다루었는지 보여준다. 46편의 양적 연구의 경우, 정신건강⁷⁾을 다룬 논문이 38편, 자가평가건강(self-rated health)을 조사한 연구가 7편, 건강관련 행위(health-related behaviors)가 2편,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1편이었다. 38편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 중 절반이 넘는 26편의 논문이 우울감(depression)에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연구들은 스트레스, 자살생각 및 시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수면장애 등을 다루고 있었다. 5편의 질적 연구의 경우는 정신건강을 조사한 연구가 3편이며 건강관련행위가 1편(Lee, 2008), 그리고 신체적 건강이 1편(Lee et al., 2013)이었다. 조사된 건강관련 행위로는 양적 연구의 경우 폭력피해(임채영·배화옥, 2011)와 병결(sickness absence)(Min et al., 2014), 그리고 질적 연구의 경우 위험한 성적행동(risky sexual behaviors)(Lee, 2008)이 있었다. 52편의

6) 다양한 건강상태를 연구한 논문들은 중복 계산하였다.

7) 정신건강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대상문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차별경험과 소진(burnout)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1편(최희경, 2008)이 있었다.

논문 전체에서, 차별경험이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양적 연구 1편과 질적 연구 1편에 불과했다. Min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과 함께 요통, 두통, 피로 등의 신체적 건강을 함께 측정하였고, 이현경 외(2013)의 연구는 조선족 중년여성 노동자의 차별경험이 근골격계 질환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mediate)하거나 조절(modify)하는 사회적 요인의 조사여부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52편 가운데, 매개변수를 검토한 논문이 6편, 조절변수를 검토한 논문이 6편, 둘 모두를 검토한 논문이 2편으로, 총 14편의 연구가 차별효과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조절변수를 조사한 8편의 연구 중 6편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있음을 밝혔고, 나머지 2편은 가족기능(family functions)(이지영, 2012)과 사회, 경제활동 참여(차은아·임성옥, 2013)가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매개요인을 조사한 8편의 논문 중, 7편의 논문은 차별경험이 자아 존중감(self-esteem)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1편은 매개변수로 차별에 대한 대처양식(coping styles)을 조사하였다(진민진 외, 2011).

마지막으로 인구집단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였다. 총 52편의 논문 중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1편(40.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인이 12편(23.1%), 장애인⁸⁾이 7편(13.5%), 노동자⁹⁾가 7편(13.5%) 순으로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미혼모 1편(남미애, 2013), 청소년 1편(송인한 외, 2011), 희귀난치성 질환자 1편(Cho et al., 2013), 이주민 시어머니 1편(성은영 외, 2012) 등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성차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지만, 분석한 52편의 모든 연구에서 여성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에 인구집단에 따른 분류에서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8) 장애인에 관한 연구(김고은·이종립, 2013)는 분류편의상 장애인집단에 포함했다.

9) 경찰관에 대한 연구(문유석, 2010)는 노동자 집단에 포함하였다.

2. 인구집단별 논문 내용분석

첫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국에서 2006년에 처음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 연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1편의 논문이 출판되어 한국에서 수행된 차별과 건강에 대한 연구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그리고 탈북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들을 이용한 논문 출판의 결과로 보인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은 결혼이주민과 그들의 자녀가 13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2편(Lee et al., 2013; Lee, 2008), 외국인 유학생이 4편(Lim et al., 2011; 나임순, 2006; 임춘희, 2009; 진민진 외, 2011), 그리고 탈북자가 2편(성정현, 2014; 조영아, 2011)에 그친다. 연구에 포함된 이주민집단의 대부분은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이었다. 21편의 이주민 대상 연구들 중 17편이 차별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었다. 그 중에서는 우울증상을 다룬 논문이 1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이 3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조사한 논문이 2편이었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21편의 논문 중 9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SS)를 사용하였고, 4편의 연구에서는 일상차별척도(EDS)를 사용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는 본래 외국 유학생의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서, 하위척도로서 8문항의 차별경험 질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Sandhu & Asrabadi, 1994).

두 번째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영역은 총 12편의 논문이 출판된, 노년층이 겪는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였다. 노인 집단에 대한 연구의 경우 연도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으나, 한국사회의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강초록·조영태, 2012). 노인에 대한 차별연구 12편 중 10편이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우울과 자살생각 및 시도에 집중되어 있다. 12편 중 9편의 연구는 차별측정 척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노인차별척도(ASI)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노인차별척도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차별경험을 사회영역 및 내용별로 나누어 측정한다. 그밖에 원영희(2005)의 연구는 노인차별을 무시(ignorance), 기피(avoidance), 소외(isolation)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는데, 노인차별이 갖는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기존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Chun et al.(2013)의 연구는 차별경험척도(Experience Of Discrimination

Questionnaire, EOD)를 이용하여 5가지 차별유형(교육, 나이, 성, 출생지역, 형제순위)을 조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인구집단은 총 7편의 논문이 출판된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집단에 대한 논문들은 차별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5편은 우울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나머지 연구들은 폭력경험(임채영·배희옥, 2011)과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건강(김고은·이종립, 2013)을 다루고 있다. 다른 인구집단들에 대한 연구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화된 차별 측정 척도는 기존에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많은 연구들은 한국복지패널이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등 기존의 표본조사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차별척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조사에서 쓰인 차별척도를 수정,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복지패널 장애인부가조사의 경우, 10가지 사회영역(학교, 결혼, 취업 등)별로 차별경험을 1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남상호 외, 2011). 장애인 차별 연구의 경우 이중차별에 대한 연구가 2편으로, 여성 장애인이 1편, 장애 노인이 1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집단에 대한 연구는 총 7편이었다. 노동자 집단은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처럼 노동자로서 받는 차별이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차별경험 측정을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7편 중 3편의 연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여 차별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본래 직무 중 스트레스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로 총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며, 이 중 직장문화(organizational climate) 항목에 성차별을 측정하는 1개의 문항을 가지고 있다(장세진 외, 2005)¹⁰⁾.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따라서 작업장 내 성차별의 건강효과만을 조사하였고, 차별경험을 직무스트레스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나머지 연구들은 작업장 내 다양한 차별의 원인을 구별하여 살펴보았는데, 예로 Kim et al.(2012)의 연구는 차별경험척도(EOD)를 이용하여 성, 교육, 나이, 차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측정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7편의 연구 중 5편의 연구가 우울감 및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을 살펴본 반면, 나머지 2편은 자가평가건강(Kim & Williams, 2012)과 직무관련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Min et al., 2014)를 조사하였다.

¹⁰⁾ KOSS를 이용한 연구 중 성차별에 주목하지 않고 차별경험을 직장문화로 환원하여 조사한 문헌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검색된 한국에서의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 52편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주민의 증가를 반영하듯 한국 보건학 분야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밝혀진 내용에 비추어 향후 한국사회에서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어 요청되는 과제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유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많은 연구는 단일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단일한 차별유형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단일 인구집단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사회적 차이에 기인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는 다양한 차별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Chun et al.(2013)의 연구는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종류의 차별유형(교육, 나이, 성, 출생지역, 형제 순위)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력, 출생지역, 계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아울러,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이혜민 외, 2014)나 탈북자들이 겪는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경험과 관련되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기존연구는 대부분 이민의 성격(결혼, 노동, 유학 등)에 따라 연구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출신국가나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차별의 질적 차이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의 인종차별은 단순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인종간 혹은 국가간 이데올로기적 위계에 기초하는 서구의 인종주의를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Kim, 2014; 하상복, 2012), 저개발국 혹은 검은 피부의 이주민들은 보다 심각한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인종차별을 연구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의 학계에서도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그리고 남미계 별로 구분하여 차별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Paradies, 2006). 하지만,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 피부색 등 인종(race)이나 민족(ethnicity)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추후 이주민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피부색, 언어 능력, 인종 그리고 국적에 따라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동자 집단에 대한 연구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사회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불평등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제로서의 노동시장과 노동과정에서의 차별과 이러한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은 성, 학력, 외모, 출신지역, 연령에 따른 차별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영역이기도 하다(Kim & Williams, 2012).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또는 하청 고용과 같은 근무형태에 따른 차별 경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바가 없었으며, 노동시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Kim & Williams, 2012).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차별 경험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한국사회의 차별 연구는 차별경험 측정을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설문지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설문지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차별 경험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노인차별척도(ASI)에서는 “나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차별경험만을 측정하고 있다(김옥, 2003). 하지만, Williams & Mohammed(2009)가 지적하듯이,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차별의 원인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질문을 특정 원인으로 한정할 경우 차별경험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이 구직 시 차별을 경험했을 경우, 차별의 원인이 여성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노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성이고 노인인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다중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연구는 차별원인을 질문하기에 앞서 부당한(unfair) 사회 경험 일반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차별경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한 후, 그 다음 질문으로 차별경험의 원인에 대해 질문한다(Kim & Williams, 2012; Williams et al., 1997).

다른 한편으로, 몇몇 연구에서 사용한 차별경험 측정 설문은, 차별경험을 스트레스의 유발요인(stressor)으로 여기는 일상차별척도(EDS)와 달리(Guyll et al., 2001) 스트레스의 한 종류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민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ASS)는 차별경험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범주로, 노동자 집단에서 쓰이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는 직무스트레스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차별경험을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것은, 차별경험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해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설명(Williams & Mohammed, 2009)과

이론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존 설문지는 일상의 차별경험만을 측정하고 그 건강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외국의 선행연구는 생활사건(life events)과 외상경험(trumatic experiences)으로서 차별경험을 구분하고 양자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Williams & Mohammed, 2009). 외상경험으로서 차별경험은 일상적 차별경험과는 다른 생물학적 기제를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의 선행연구는 이를 구별하며 측정된 연구가 전무하다. 이와 함께,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차별의 주체(perpetrators)와 피해자의 대응양식(responses or coping behaviors)도 함께 측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Williams & Mohammed, 2009). 향후 연구는 차별측정도구가 차별경험을 측정하기에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차별경험 측정 도구의 타당성(validity)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차별경험은 대상자의 자가보고(self-report)를 통해 측정되는데, 사회심리적으로 예민한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자들에 대한 한국 연구는 드물었다(Kim et al., 2012). Krieger(1999)가 지적했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은 흔히 지배 계층의 가치관을 내면화(internalized oppression)하여 차별경험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socially acceptable response)을 하기 위해 차별 경험을 확대 혹은 축소 보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기존 연구에서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는 것에 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경험하는 차별을 훨씬 더 높게 보고한다는 결과(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를 경험적으로 보여준 논문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Poore et al., 2002; Taylor et al., 1990).

더 나아가 여성이나 저학력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집단에서 차별경험이 축소보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Ruggiero & Taylor, 1997). Crosby et al.(1984)는 보스턴 근교의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금 차별을 차별로 보고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연구하였고, Kim et al.(2012)는 한국의 노동패널 데이터를 통계적 추론(statistical imputation)을 이용해 분석하여 여성이나 저학력자의 경우, 남성이나 고학력자에 비해 자신의 차별경험을 축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 차별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Krieger et al.(2010)는 하버드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무의식 수준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는 차별경험 측정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요청된다.

여섯째, 현재까지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연구에서는 차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하여 살펴본 건강변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52편의 연구 중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우울감 26편, 자살생각 및 시도 7편, 기타 정신건강 9편으로 총 42편이며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그러나 서구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정신건강을 넘어 다양한 건강관련변수를 다루어 왔다. 예를 들어, 차별경험이 심장병(Kivimaki et al., 2005; Wyatt et al., 2003), 대사증후군(De Vogli et al., 2007), 근골격계질환(Kim et al., 2013) 등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미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더 나아가 의료 접근성(Harris et al., 2012; Jacobs et al., 2014), 저체중출산(Mustillo et al., 2004) 같은 다양한 건강관련변수 역시 차별 경험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에서의 차별경험과 건강연구는 정신건강을 넘어 보다 다양한 건강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양적 연구의 경우 46편 중 1편을 제외한 45편이 단면 연구였다. 단면 연구의 경우, 차별과 건강 사이의 유의한 결과를 차별경험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차별을 더 경험할 가능성, 즉 역인과관계의 가능성(potential reverse causation)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Gee & Walsemann, 2009). 특히, 본 연구에 포함된 몇몇 논문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경험을 보고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여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옥, 2003; 양정남 외, 2010).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에는 종적 데이터(longitudinal data)를 활용한 연구가 요청된다. 유일한 종적 연구인 전해숙과 강상경(2013)의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차별경험이 우울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었으나 향후 종적 연구는 보다 진전된 연구 설계를 통해 차별과 건강의 인과 관계를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여덟 번째, 향후 차별경험과 건강연구는 다중차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에 따르면, 성(gender), 인종, 그리고 계급 등과 같은 권력관계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 편의 불평등이 다른 한쪽의 불평등을 강화한다(Collins, 1990). 예를 들어, 다중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성원들의 - 예를 들어 여성이민자 - 차별경험은 일반여성 혹은 남성 이민자와 비교해 양적으로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차별을 겪을 수 있다(Shin, 2009). 다중차별에서 각각의 차별경험이 분리불가능하고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특히 질적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차별과 건강에 관한 연구 52편 중 질적 연구는 5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중차별을 받는 집단, 예를 들어 저학력 결혼이주 여성이나 장애를 지닌 이민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번째, 연구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확보를 위해 보다 엄밀한 연구디자인이 필요하다. 양적 연구 46편 중 유일한 종적 연구인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전해숙·강상경, 2013)는 차별경험 측정에서 정보 바이어스(Information bias)가 우려된다. 이 연구는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애인들의 차별경험을 측정하였는데,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차별경험을 측정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에서는 별도의 구분 없이 함께 분석되고 있다. 차별경험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차별을 경험한 본인이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stress)를 받아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인데, 차별의 피해자인 당사자가 아니라 보호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 차별경험은 당사자를 통한 차별경험의 건강악화와는 다른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양적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대상이 포함된(N=226,084) 결혼이민여성의 건강에 대한 연구(조주은·조금준, 2014)는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연구대상자로 제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제시하는 결과가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라는 언급이 없으며, 가중치 적용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다른 여러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표에서는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수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분석과정을 재현(replication)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직접적이고(direct), 개인간(interpersonal) 수준에서 발생하는 차별경험을 조사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차별경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낙인(stigma),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그리고 따돌림(bullying)의 건강영향을 연구한 문헌들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 왔다(신승배, 2013; 육혜련 2013; 윤명숙·이희정, 2013). 하지만, 이들 개념은 직접적 차별경험의 영향뿐만 아니라 내화된 억압이나 제도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의 직간접적인 사회적 기제들과 이에 따른 건강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된 차별경험과 건강에 대한 연구 52편을 분류 및 검토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Audre Lorde가 말한 아래의 문장과 같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생존은 차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미래의 생존은 얼마만큼 평등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Our future survival is predicated upon our ability to relate within equality.”

손인서는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수민족/인종, 국제이주, 질적방법론이며, 현재 한국의 사회적 소수자집단의 차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mail: panopticon17@gmail.com)

김승섭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직업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소수자 건강, 차별경험과 건강, 불안정 노동과 건강이다. (E-mail: ssk3@korea.ac.kr)

참고문헌

- 강초록, 조영태(2012). 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5(3), pp.1-27.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pp.5-34.
- 김고은, 이종림(2013). 장애노인의 이중차별경험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역할수행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59, pp.257-280.
- 김성희(2009). 장애인의 폭력·차별실태. *보건복지포럼*, 153, pp.6-12.
- 김영선, 김보형, 김혜민(2014).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근로환경 취약점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5, pp.309-329.
- 김옥(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pp.21-35.
- 나임순(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 비영리연구*, 5(2), pp.159-197.
- 남미애(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pp.91-125.
- 남상호, 최현수, 전지현, 신재동, 정희선, 이경진 외(2011). 2011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동규(2012).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노인복지연구*, 55, pp.133-157.
- 문유석(2010).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4(4), pp.41-60.
-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한국여성개발원(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성은영, 권지은, 황순택(2012).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pp.363-383.
- 성정현(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5), pp.117-131.
- 성정현, 이영미(2003). 건강, 교육, 취업 현황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인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욕구. *재활복지*, 7(1), pp.47-77.
-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pp.199-223.

- 신광영(2013).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서울: 후마니타스.
- 신승배(2013). 한국 동성애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pp.380-415.
- 양정남, 최은정, 김화선, 심정영(2010).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노인차별경험의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4, pp.207-229.
- 원영희(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pp.319-339.
- 육혜련(2013).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과의 관계연구. *보건사회연구*, 33(4), pp.245-274.
- 윤명숙, 이희정(2013).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 직무만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3), pp.34-62.
- 이지영(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pp.105-125.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6, pp.43-76.
- 임채영, 배희옥(2011).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위험요인. *재활복지*, 15(1), pp.19-46.
- 임춘희(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pp.93-112.
- 장세진, 고상백, 강동욱,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외(2005).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7(4), pp.297-317.
- 전해숙, 강상경(2013). 장애인의 우울궤적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7(2), pp.41-67.
- 조영아(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이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pp.1-19.
- 조주은, 조금준(2014). 결혼이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에 대한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7(2), pp.5-28.
- 진민진, 배성만, 현명호(2011). 경험논문 : 중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4), pp.783-797.
- 차은아, 임성옥(2013).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9(1), pp.237-260.
- 최희경(2008). 노인 돌봄 종사자의 소진 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8(1), pp.157-176.

- 하상복(2012). 황색 피부, 백색 가면. *인문과학연구*, 33, pp.525-556.
- Asakura, T., Gee, G. C., Nakayama, K., Niwa, S. (2008). Returning to the “homeland”: work-related ethnic discrimination and the health of Japanese Brazilians in Japa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8(4), pp.743-750.
- Berkman, L. F., Glymour, M. M., Kawachi, I. (Eds.). (2014). *Social Epidem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orrell, L. N., Jacobs, D. R., Jr., Williams, D. R., Pletcher, M. J., Houston, T. K., Kiefe, C. I. (2007). Self-reported racial discrimination and substance use in the Coronary Artery Risk Development in Adults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6(9), pp.1068-1079.
- Burgess, D., Tran, A., Lee, R., van Ryn, M. (2007). Effect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utilization among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persons. *Journal of LGBT Health Research*, 3(4), pp.1-14.
- Chae, D. H., Krieger, N., Bennett, G. G., Lindsey, J. C., Stoddard, A. M., Barbeau, E. M. (2010). Implications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ity, gender, and race/ethnicity fo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working-class sexual minorities: the United for Health Study, 2003-2004.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0(4), pp.589-608.
- Chae, D. H., Takeuchi, D. T., Barbeau, E. M., Bennett, G. G., Lindsey, J. C., Stoddard, A. M., et al. (2008). Alcohol disorders among Asian Americans: associations with unfair treatment, racial/ethnic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fication (the national Latino and Asian Americans study, 2002-2003).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2(11), pp.973-979.
- Cho, J., Choi, E.-k., Kim, S. Y., Shin, D. W., Cho, B.-L., Kim, C.-h., et al. (2013). Association between cancer stigma and depression among cancer survivors: a nationwide survey in Korea. *Psycho-Oncology*, 22(10), pp.2372-2378.
- Chou, K. L.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among new migrants to Hong Kong: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and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8(1-2), pp.63-70.

- Chun, H., Kang, M., Cho, S. I., Jung-Choi, K., Jang, S. N., Khang, Y. H. (2013). Does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ffect Health? A Cross-Sectional Study of Korean Elders.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 Collins, P. H. (1990). *Black feminist thought :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Boston: Unwin Hyman.
- Crosby, F. (1984). The Denial of Personal Discrimin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3), pp.371-386.
- De Vogli, R., Brunner, E., Marmot, M. G. (2007). Unfairness and the social gradient of metabolic syndrome in the Whitehall II Stud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3(4), pp.413-419.
- Feinstein, B. A., Goldfried, M. R., Davila, J.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among lesbians and gay men: An examination of internalized homonegativity and rejection sensitivity as potential mechanism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80(5), pp.917-927.
- Flier, J. S., Underhill, L. H., McEwen, B. S. (1998). Protective and damaging effects of stress mediator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8(3), pp.171-179.
- Gee, G., Walsemann, K. (2009). Does health predict the reporting of racial discrimination or do reports of discrimination predict health? Finding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Youth. *Social Science & Medicine*, 68(9), pp.1676-1684.
- Gee, G. C., Walsemann, K. M., Brondolo, E. (2012).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How Racism May Be Related to Health Inequ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5), pp.967-974.
- Gibbons, F. X., O'Hara, R. E., Stock, M. L., Gerrard, M., Weng, C. Y., Wills, T. A. (2012). The erosive effects of racism: Reduced self-control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and substance use i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5), pp.1089-1104.

- Guyll, M., Matthews, K. A., Bromberger, J. T. (2001). Discrimination and unfair treatment: Relationship to cardiovascular reactivity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women. *Health Psychology, 20*(5), pp.315-325.
- Han, J., Richardson, V. E. (2014).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discrimination, self-perceptions of aging, and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ge discrimination. *Aging & Mental Health, pp.*1-9.
- Harris, R., Cormack, D., Tobias, M., Yeh, L.-C., Talamaivao, N., Minster, J., et al. (2012). Self-Reported Experience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Health Care Use in New Zealand: Results From the 2006/07 New Zealand Health Surve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5), pp.1012-1019.
- Jacobs, E. A., Rathouz, P. J., Karavolos, K., Everson-Rose, S. A., Janssen, I., Kravitz, H. M., et al. (2014). Perceived Discrimination Is Associated with Reduced Breast and Cervical Cancer Screening: The Study of Women's Health Across the Nation (SWAN). *Journal of Women's Health, 23*(2), pp.138-145.
- Kim, H., Jayaraman, S., Landsbergis, P., Markowitz, S., Kim, S., Dropkin, J. (2013). Perceived discrimination from management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among New York City restaurant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19*(3), pp.196-206.
- Kim, J. K. (2014). Yellow over Black: History of Race in Korea and the New Study of Race and Empire. *Critical Sociology*.
- Kim, S.-S., Chung, Y., Subramanian, S. V., Williams, D. R. (2012). Measuring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Under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criminatory Experiences among Female and Less Educated Workers? *PLoS One, 7*(3), e32872.
- Kim, S.-S., Williams, D. R.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Plos One, 7*(1).
- Kivimaki, M., Ferrie, J. E., Brunner, E., Head, J., Shipley, M. J., Vahtera, J., et al. (2005). Justice at work and reduced risk of coronary heart disease among employees: the Whitehall II Study.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5*(19), pp.2245-2251.

- Koo, H. (2001). *Korean workers: the culture and politics of class forma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rieger, N. (1999). Embodying inequality: a review of concepts, measures, and methods for studying health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9(2), pp.295-352.
- Krieger, N. (2012). Methods for the Scientific Study of Discrimination and Health: An Ecosocial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5), pp.936-944.
- Krieger, N. (2014). Discrimination and health inequ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44(4), pp.643-710.
- Krieger, N., Carney, D., Lancaster, K., Waterman, P. D., Kosheleva, A., Banaji, M. (2010). Combining explicit and implicit measures of racial discrimination in health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8), pp.1485-1492.
- Lee, H.-Y., Choi, J.-Y., Chung, Y.-H., Min, S. K. (2012). Psychiatric Disorder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ur Case Report.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1(6), pp.445-457.
- Lee, H., Chae, D., Lee, K., Lee, M. (2013). Experiences of Middle-aged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in Korea: With Focus on Risk Factors in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2), pp.185-194.
- Lee, J. (2008). Migrant workers and HIV vulnerability in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46(3), pp.217-233.
- Lewis, T. T., Everson-Rose, S. A., Powell, L. H., Matthews, K. A., Brown, C., Karavolos, K., et al. (2006). Chronic exposure to everyday discrimination and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in African-American women: the SWAN Heart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68(3), pp.362-368.
- Lim, H. S., Lee, J. h., Kim, S. W. (2011).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Rol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Years of Residence. *한국가족복지학*, 16(3), pp.107-126.

- Lin, D., Li, X., Wang, B., Hong, Y., Fang, X., Qin, X., et al. (2009). Discrimination, Perceived Social Inequity, and Mental Health Among Rural-to-Urban Migrants in China.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2), pp.171-180.
- Matud, M.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pp.1401-1415.
- Mays, V. M., Cochran, S. D. (2001).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1), pp.1869-1876.
- Min, J.-Y., Park, S.-G., Kim, S.-S., Min, K.-B. (2014). Workplace Injustice and Self-Reported Disease and Absenteeism in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57(1), pp.87-96.
- Moher, D., Liberati, A., Tetzlaff, J., Altman, D. G. (2009).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the PRISMA statemen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4), pp.264-269.
- Moomal, H., Jackson, P. B., Stein, D. J., Herman, A., Myer, L., Seedat, S., et a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disorders: the South African Stress and Health study. *South African Medical Journal*, 99(5 Pt 2), pp.383-389.
- Mustillo, S., Krieger, N., Gunderson, E. P., Sidney, S., McCreath, H., Kiefe, C. I. (2004). Self-reported experience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Black-White differences in preterm and low-birthweight deliveries: the CARDIA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12), pp.2125-2131.
- Noh, S., Beiser, M., Kaspar, V., Hou, F., Rummens, J. (1999).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coping: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193-207.
- Palmore, 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pp.572-575.
- Paradies, Y. (2006). A systematic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on self-reported racism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5(4), pp.888-901.
- Pavao, A. L., Ploubidis, G. B., Werneck, G., Campos, M. R. (2012). Racial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Brazil: evidence from a population-based survey.

- Ethnicity & Disease*, 22(3), pp.353-359.
- Perreira, K. M., Telles, E. E. (2014). The Color Of Health: Skin Color, Ethnoracial Classificat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Health Of Latin Americans. *Social Science & Medicine*, 116, pp.241-250.
- Poore, A. G., Gagne, F., Barlow, K. M., Lydon, J. E., Taylor, D. M., Wright, S. C. (2002). Contact and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in an Inuit community.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4), pp.371-382.
- Richman, L. S., Jonassaint, C. (2008). The effects of race-related stress on cortisol reactivity in the laboratory: implications of the Duke lacrosse scandal.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5(1), pp.105-110.
- Ruggiero, K. M., Taylor, D. M. (1997). Why Minority Group Members Perceive or Do Not Perceive the Discrimination That Confronts Them: The Role of Self-Esteem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2), pp.373-389.
- Sandhu, D. S.,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1. *Psychological Reports*, 75(1), pp.435-448.
- Santana, V., Almeida Filho, N., Roberts, R., Cooper, S. P. (2007). Skin colour, perception of racism and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in urban Brazil.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2(3), pp.125-131.
- Shea, B. J., Grimshaw, J. M., Wells, G. A., Boers, M., Andersson, N., Hamel, C., et al. (2007). Development of AMSTAR: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the methodological quality of systematic reviews. *BMC Medical Research Methodology*, 7(10).
- Shin, J. J. (2009). The gendered and racialised division in the Korean labour market: the case of migrant workers in the catering sector. *East Asia*, 26(2), pp.93-111.
- Sutin, A. R., English, D., Evans, M. K., Zonderman, A. B. (2014).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mplifies the effect of antagonism on cigarette smoking. *Nicotine & Tobacco Research*, 16(6), pp.794-799.
- Taylor, D. M., Wright, S. C., Moghaddam, F. M., Lalonde, R. N. (1990).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6(2), pp.254-262.

- Tilly, C. (1998). *Durable Inequalit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ogt Yuan, A. S. (2007). Perceived Age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Social Forces*, 86(1), pp.291-311.
- Wang, B., Li, X., Stanton, B., Fang, X. (2010). The influence of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ory experience 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quality of life among rural-to-urban migrants in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71(1), pp.84-92.
- Wiehe, S. E., Aalsma, M. C., Liu, G. C., Fortenberry, J. D., Stultz, L. (2010).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adolescent smok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3), pp.510-516.
- Williams, D. R., Gonzalez, H. M., Williams, S., Mohammed, S. A., Moomal, H., Stein, D. J.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race and health in South Africa. *Social Science & Medicine*, 67(3), pp.441-452.
- Williams, D. R., Haile, R., Mohammed, S. A., Herman, A., Sonnega, J., Jackson, J. S., et al.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S.A. and South Africa. *Ethnicity & Health*, 17(1-2), pp.111-133.
- Williams, D. R., Mohammed, S. A. (2009). Discrimination and racial disparities in health: evidence and needed research.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1), pp.20-47.
- Williams, D. R., Yu, Y., Jackson, J. S., Anderson, N. B.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pp.335-351.
- Wyatt, S. B., Williams, D. R., Calvin, R., Henderson, F. C., Walker, E. R., Winters, K. (2003). Racism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African Americans. *The American Journal of the Medical Sciences*, 325(6), pp.315-331.
- Yoon, C., Ju, Y. S., Kim, C. Y. (2011). Dispar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urban homeles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4(6), pp.267-274.
- Zeiders, K. H., Doane, L. D., Roosa, M. W. (2012).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iurnal cortisol: Examining relations among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Hormones and Behavior*, 61(4), pp.541-548.

부록

부표 1.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 현황

(N=52)

No.	제목 (연도)	표본수/ 조사대상	차별 측정 도구	측정간변수	연구 방법
이주민					
1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006)	275	ASS*	정신건강(스트레스)	양적
2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2007)	153	ASS	정신건강(우울, PTSD)	양적
3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08)	154	ASS	정신건강(스트레스)	양적
4	Migrant Workers and HIV Vulnerability in Korea (2008)	33	기타	건강관련행위	질적
5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2009)	16	기타	정신건강(스트레스)	질적
6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2010)	105	EDS [†]	정신건강(우울)	양적
7	경험논문 : 중국인 유학생의 자각된 차별감, 대처양식,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1)	201	ASS	정신건강(우울)	양적
8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중심 (2011)	113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9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2011)	256	EDS	정신건강(우울)	양적
10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2011)	500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11	A Comparison of Path Factors Influencing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of Immigrant Women and Korean Children in South Korea (2011)	207	EDS	정신건강(우울)	양적
12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Rol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Years of Residence (2011)	129	ASS	정신건강(우울)	양적
13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2012)	210	ASS	정신건강(우울)	양적
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2)	210	ASS	정신건강(우울)	양적

No.	제목 (연도)	표본수/ 조사대상	차별 측정 도구	측정건강변수	연구 방법
15	한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민족 정체감, 차별경험, 자이즌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2012)	309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2013)	304	ASS	정신건강(기타)	양적
17	Depression in Non-Korean Women Residing in South Korea Following Marriage to Korean Men (2013)	173	ASS	정신건강(우울)	양적
18	Experiences of Middle-aged Korean-Chinese Female Migrant Workers in Korea: With Focus on Risk Factors in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eases (2013)	23	기타	신체건강	질적
19	결혼이민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에 대한 탐색 (2014)	226,084*	기타	자가평가건강	양적
20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 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4)	5	기타	정신건강(PTSD)	질적
21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in Korea (2014)	57,838	기타	자가평가건강	양적
노인					
22	노인차별의 실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2003)	427	ASI ⁸	자가평가건강	양적
23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005)	323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24	연구논문: 노인의 우울 및 자살생각에 있어서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 (2005)	265	ASI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양적
25	공공부조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 (2008)	572	ASI	정신건강(우울)	양적
26	노인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2009)	174	ASI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양적
27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노인차별경험의 영향요인 (2010)	266	ASI	자가평가건강	양적
28	노인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고독의 매개효과 (2011)	291	ASI	정신건강(우울)	양적
29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유발변인의 메타회귀분석 (2012)	N/A	기타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메타
30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절망과 우울의 매개효과 (2012)	291	ASI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양적
31	노인차별(ageism)의 사회경제적 관련요인과 건강영향 (2013)	345	ASI	정신건강(우울)	양적
32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2013)	278	ASI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양적

No.	제목 (연도)	표본수/ 조사대상	차별 측정 도구	측정변수	연구 방법
33	Does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ffect Health? A Cross-Sectional Study of Korean Elders (2013)	992	EOD ^{II}	정신건강(우울), 자가평가건강	양적
장애인					
34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지원 및 우울의 관계: 한국 복지패널 장애인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2009)	869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35	장애차별경험과 장애인의 우울감의 관계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0)	404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36	장애인의 우울관계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3)	855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37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2013)	200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38	장애차별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연구 (2013)	4,393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노동자					
39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Korean Employees (2008)	8,522	KOSS ^I	정신건강(우울)	양적
40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the Effects of Culture on Work (2009)	3,013	KOSS	정신건강(우울)	양적
41	경찰관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영향요인 (2010)	314	기타	정신건강(스트레스)	양적
42	Association between Job Stress and Insomnia in Korean Workers (2011)	8,155	KOSS	정신건강(수면장애)	양적
43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in South Korea: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2012)	11,544	EOD	자가평가건강	양적
44	Organizational Factors Associated with Work-related Sleep Problem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workers (2013)	10,039	기타	정신건강(수면장애)	양적
45	Workplace Injustice and Self-Reported Disease and Absenteeism in South Korea (2014)	7,007	기타	다양한 건강상태 (병결, 정신, 신체)	양적
다중차별(장애인)					
46	여성장애인의 폭력피해 위험요인 (2011)	1,548	기타	건강관련행위	양적
47	장애노인의 이중차별경험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역할수행의 매개효과 (2013)	207	기타	자가평가건강	양적
기타					
48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11)	3,117	기타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양적
49	다문화가정 시어머니의 고부갈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2012)	7	기타	정신건강(기타)	질적

No.	제목 (연도)	표본수/ 조사대상	차별 측정 도구	측정건강변수	연구 방법
50	사회적 차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2012)	5,846	기타	정신건강(자살생각 및 시도)	양적
5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2013)	123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52	Association between Cancer Stigma and Depression among Cancer Survivors: a Nationwide Survey in Korea (2013)	466	기타	정신건강(우울)	양적

주: * 문화적응 스트레스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 일상차별척도(Everyday Discrimination Scale),
 ‡ 모수에 대한 추정치,
 § 노인차별척도(Ageism Survey Instrument),
 || 차별경험척도(Experience Of Discrimination Questionnaire),
 ¶ 한국인직무스트레스척도(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A Systemic Review of Research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Son, Inseo
(Korea University)

Kim, Seung-Sup
(Korea University)

Although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has been a main issue in public health, there has been little systematic discussion in a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 sought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existing literature on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and present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Selected through online academic databases in English and Korean, 52 empirical journal articles are reviewed for this study. A systemic review identifies four main characteristics among the studie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in South Korea. First, the stud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3 and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2010. Second, most studies have utilized quantitative methods (N=46) with most of them analyzed cross-sectional data (N=45), while five qualitative methods (N=5). Third, the majority of studies focused on mental health (N=42). Forth, the studies dealt with a variety of population groups including foreigners/immigrants (N=21), the elderly (N=12), and the disabled (N=7). Our critical review sugges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overlooked forms of discrimination, for instance, based on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appearance, need to be examined in South Korea. Second, a more critical approach toward perceived discrimination scales is required for future research. Third, researchers need to explore other health outcomes beyond mental health outcomes. Forth, more studies with longitudinal dataset are required given that there was only one cohort study. Fifth, future studies should explore an intersectional nature of discrimination and its impact on health.

Keywords: Perceived Discrimination, Health, Systemic Review, South Korea